

한국화학연구원의 초빙연구원 중국 길림화학기술연구소 왕진준교수 암 치료용 '광역학 치료' 연구

중국의 과학자 왕진준박사는 98년 한국의 한국화학연구원에 와서 '광역학 치료' (PDT)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PDT라는 기술은 암을 치료하는 기술중의 하나로 전망이 밝다"고 말하는 왕박사는 "중국에서도 막 시작하는 연구분야여서 앞으로 중국에 귀국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광역학 치료(PDT ; Photodynamic Therapy)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민감성물질(photosensitizer)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PDT라는 기술은 암을 치료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써 그 전망이 매우 밝은 연구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화학물질연구단4팀(팀장 심영기박사)과 함께 '광역학 치료(PDT)'를 개발 중인 왕진준(중국 길림화학기술연구소 교수)박사는 PDT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과 빛을 산소 분자가 있는 환경에 동시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의약학적 치

료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특별한 장점과 치료의 편이성 그리고 높은 치료 효과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98년 한국에 ... 3년째 연구

98년 한국에 와서 만 3년을 근무하고 있다는 왕박사는 Brain Pool이라는 좋은 제도 덕분에 한국에 와서 연구도 하고 또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공부할 수도 있게 되었다며,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또 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돼 매우 즐겁다고 말한다.

전공이 유기화학 중에서도 유기 합성이라는 왕박사는 중국에서는

지역마다 균형있게 발전되지 못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소개한다.

예를 들면 천연물을 합성하는 경우 유명한 대학이나 연구소는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연구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설과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천연물 합성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실험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중국의 학문연구는 보다 실용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학에서는 기초 연구를 많이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정부는 교육과 과학에 매우 큰 투자를 하는 것 같아 보인

다는 왕박사는 일반인들도 고등교육으로 모두 훈련이 잘 되어 있어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사회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도 친절하고 열심히 일 뿐 아니라 매우 양심적이고, 모든 일을 규칙에 따라 매우 질서있게 처리하고 있어 매우 부럽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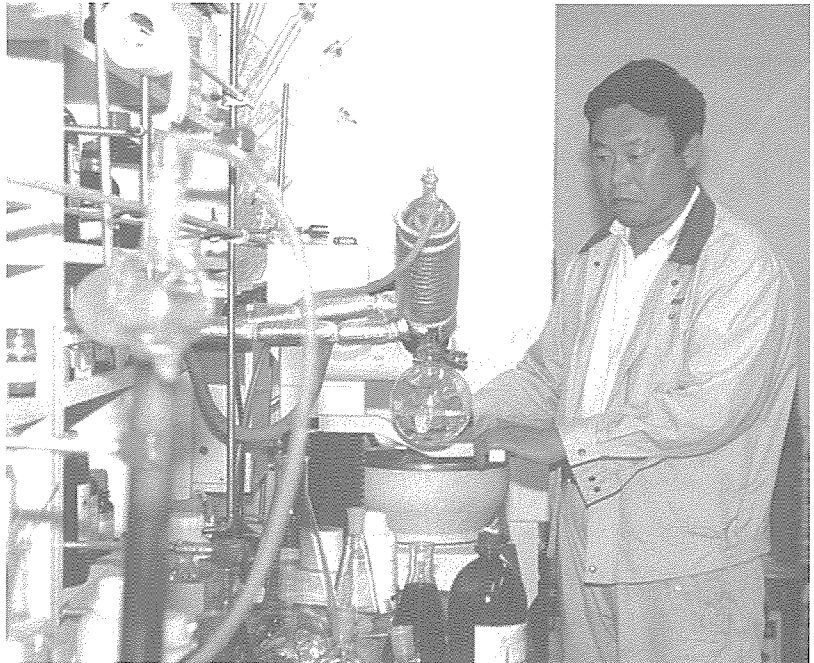
왕박사는 특히 기술의 발전은 경제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 발전은 곧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게 되므로 한국은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과학기술을 이끄는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귀국후도 PDT 연구 계속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는 없지만 화학에 관해서는 논문 잡지의 종류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적은 것 같다는 왕박사는 보다 많은 화학 전문잡지를 구비할 수 있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류에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주문하는 왕박사는 현재의 Brain Pool 제도 같은 것은 매우 좋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PDT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며 물론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화학물질연구단 연



구팀과도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왕박사는 연구소에 최신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연구 수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과 동등한 부분도 있으며, 연구진들도 그 자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관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에 와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을 TV를 통해 보고 매우 인상 깊었다는 왕박사는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도 한국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염원을 엿볼 수 있는 감동의 사건이었다고

회고한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을 초청해서 한 여름 같이 지내며 에버랜드도 가 보았고 또 연구소에서 마련해 준 여러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여러 산업 시찰을 다니기도 했다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여러 단체가 특히 교회가 한국어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등 너무나 유익하게 한국 생활을 잘 보냈다는 왕박사는 한국은 전국이 모두 아름다운 나라이고 곳곳이 다 균형있게 발전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⑤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